



흙과 꽃을 담은 비누

우리 땅에서 자란 재료로 빚은 여섯 가지 맑은 숨결을 선물합니다.



거친 결을 달래는 쑥

거칠어진 피부결에 편안한 휴식을 주는 부드러운 거품입니다.



유자와 동백의 생기

맑은 햇살을 머금은 원료가 피부에 생기 넘치는 윤기를 더합니다.



숫과 쪽풀이 빛은 청결

모공 속 묵은 노폐물을 순하게 비워내어 말끔한 피부를 선사합니다.



보드라운 곡물의 영양

어린이아이부터 어른까지 매일 부담 없이 쓰는 순한 수분감입니다.



마음을 전하는 선물

정성스레 빚어 굳힌 자연의 시간을 소중한 분에게 전해보세요.